

<http://dx.doi.org/10.17703/JCCT.2015.1.1.69>

JCCT 2015-2-6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일 장례문화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an aging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황규성*, 배호정*, 최영은*, 김정래**

Kyu-Sung Hwang*, Ho-Jung Bae*, Young-Eun Choi*, Jeong-Lae Kim**

요 약 최근 한국에서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는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더 심화된 고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장례문화 중 한국의 장례에 도입할 수 있는 적합한 문화를 비교하여 고령화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장례문화는 슈카츠(終活), 직장(直葬), 가족장(家族葬) 등이 있다. 이 중, 핵가족화 및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소규모 장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이 한국에 도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와 고령화에 따른 변화된 장례문화의 제시는 필수적이며, ‘가족장(家族葬)’ 제도의 도입은 향후 발생할 한국 내의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노령화 사회, 일본의 장례, 한국의 장례, 가족장, 대비

Abstract Abstract Social pathologic phenomenon such as low fertility, nuclear family and one person households seems to be on the rise as Korea moves towards being an aging society. We think many trouble is expected to be exit as aging society progresses, but there were few studies about an aging society, especially funeral culture. Appearance of the aging society in Korea similarly follows the course of Japan. So we studied about similar funeral culture of aging society in Japan and prepared for the funeral culture in Korea. This study will suggest a gaze on realistic objective point of view, through the way to illustrate exactly the concept of “funeral for family (家族葬)” among Japanese funeral culture(Syukacheu(終活), Chyokusou(直葬) and funeral for family(家族葬)) and will b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guide for leading the funeral culture in Korea occur due to aging in future. And this study will give a chance to ruminate on our’s funeral attitude about the deceased’s dignity.

Key Words : Aging society, Japanese funeral, Korean funeral, Funeral for family(家族葬), Preparation

1. 서 론

최근 한국에서는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정회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정회원, 을지대학교 의료공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4년 9월 3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1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월 20일

Received: 3 September 2014 / Revised: 5 January 2015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jlkim@eulji.ac.kr

Dept.: Biomedical Engineering, Eulji University

다. 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전무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 가족 증가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례문화 역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의 비교대상으로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일본은 한국과 가급적으로 문화와 사회변화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는 나라이다. 두 번째, 한국 장례문화의 변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장례 형태를 앞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고령화 추이를 비교해 보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일본 장례문화 중 국내에 도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례 문화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장례문화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일 고령화 추이

1. 일본 고령화 추이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령화 과정에 접어들었다. [그림1]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총 인구는 1950년 8,320만 명에서 2010년 1억 271만 명으로 50% 이상 증가하였고, 15세 이하의 연령 인구는 총 인구의 33%를 점했던 195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 인구는 1950년에서 2010년 사이에 5% 미만에서 23%로 증가해 평균수명의 연속적인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초(超)고령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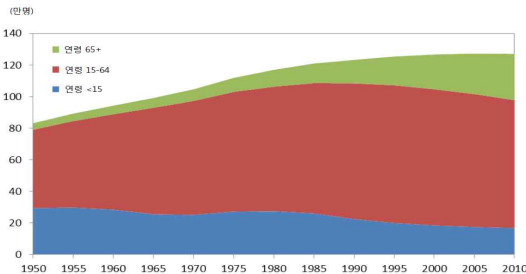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1950-2010)

Fig 1. Japan's demographic change(1950-2010)

2. 한국 고령화 추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 명(2.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고

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KOSIS에서 발표한 2010~2060년까지의 총인구대비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구성비를 보면 65~74세의 비중은 2020년 57.6% → 2030년 60.0%로 증가 이후 감소, 75~84세의 비중은 2030년 29.6% → 2040년 38.5%로 증가, 85세 이상의 비중은 2040년 12.6% → 2050년 2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이러한 한국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36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한국 총인구대비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구성비 (2010-2060) (단위 : %)

Table 1. Korea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by demographic aging population ratio (2010-2060)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65-74세	62.4	57.6	60.0	48.9	40.8	37.7
75-84세	30.8	32.4	29.6	38.5	38.6	36.9
85세+	6.8	10.0	10.4	12.6	20.6	25.4

III. 한·일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비교

1.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 「일본」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장례식 참석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따라 장례식의 소형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례 소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슈카츠(終活, 임종을 준비하는 활동)’, 두 번째 ‘직장(直葬, 초쿠소우)’, 세 번째 ‘가족장(家族葬, 가조쿠소우)’이다.

1) 슈카츠(終活)

‘슈카츠(終活)’는 ‘임종 준비 활동’을 뜻하는 말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이 만약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노년층이 생의 마감을 준비하기 위한, 죽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살아생전의 활동을 의미한다.

2) 직장(直葬, 초쿠소우)

‘직장(直葬, 초쿠소우)’이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먼저 일반화된 용어로 위에서 언급한 츠야(通夜), 고쿠베쯔 시키(告別式), 소시키(葬式), 화장(火葬), 납골(納骨)이라고 하는 일련의 장례과정을 간소화하여 츠야(通夜)후에 바로 화장(火葬)을 하는 것이다.

3) 가족장(家族葬, 가조쿠소우)

‘가족장(家族葬, 가조쿠소우)’이란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례 형태로 기본적인 식의 흐름은 일반적인 장례식의 형태와 동일하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장례를 말한다.

가족장(家族葬)은 장례식의 참석인원을 미리 소규모로 확정 지어 두고 장례지도사가 그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고인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가족장은 장례식의 허례허식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일반 장례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며 가족 및 친지가 장례식 준비에 참여하여 고인만을 위한 장례식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장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단점 역시 존재한다.

본 장례식 때, 조문객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으며, 생전에 지인이 많았던 고인의 경우,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많은 조문객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 「한국」

현재 국내의 장례 형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일률적’이다. 장례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3일장을 기준으로 상(喪)이 발생하면 첫째 날,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수시-고인 안치-빈소설치-부고(訃告)-상식 및 제사상을 차리고 둘째 날에는 염습(殮襲)-반함(飯含)-입관(入棺)-성복(成服)-성복제를 지낸 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발인식-운구(運柩)-매장 또는 화장-장례 후 의례 이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장례 산업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3일장 이외에 회사장, 학교장 등의 단체장 및 ‘빨리, 간단하게’에 치우쳐 장례절차를 생략하여 치르는 직장(直葬)에 가까운 장례형태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장례

문화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 장례식장’의 출현 이후 장례장소가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후 용품, 제단, 시신메이크업 등의 다양한 방면의 장례문화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 고령화가 대두한 200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에 맞춘 장례문화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의 장례문화는 아직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 한다기보다는 상업적 초점에 맞추어 현재의 장례문화를 유지시키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다수의 장례서비스 관련 회사들 및 장례식장에서는 ‘가족장’, ‘직장’ 등 ‘소규모 장례’에 관해서는 일반 장례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장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고 찰

1. 한·일 고령화 추이 비교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36년이 걸린 반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림 2] 를 보듯이 일본의 고령화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이고, 향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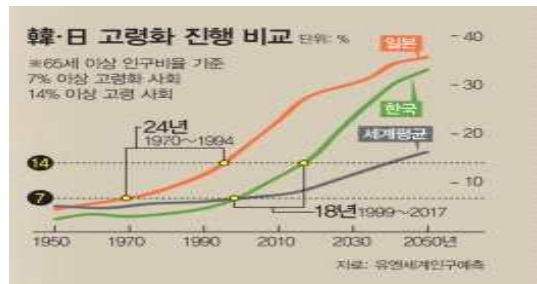


그림 2. 韓·日 고령화 진행 비교(유엔세계인구예측)

Fig 2. Aging progression compared to Korea and Japan

2. 한·일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비교 및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

의 고령화 추이가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장례문화를 변화시켜 왔으나,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변화된 일본의 장례문화 중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가족장(家族葬)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은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장례식의 형태와 동일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소규모 장례인 반면, 한국은 소규모 장례의 의미를 가진 장례형태가 미비하며, ‘빨리, 간단하게’에 치우쳐 축소된 절차로 입관 후 다음 날 화장해 버리는 무성의한 직장(直葬)에 가까운 형태들이 있다.

향후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소규모 장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현상에 발맞춰 장례문화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장례문화의 보급이 “일치루기” 식의 무성의한 장례문화로 발전해서는 안될 것이며, 장례의 중심인 “고인의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는 경건한 장례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고령화시대의 장례문제를 준비한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가오는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에 대한 대안 제시와 경건한 장례문화를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따라 일본의 변화된 장례문화를 알아보고 한국의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고령화 추이가 일본과 유사하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 형태를 보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일본의 고령화에 따라 변화된 장례문화를 한국에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장례문화 중 가족장(家族葬)

이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장례형태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한국과 일본의 장례관련 문화인식차이가 상존하고 있고,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서와 현황에 맞게 보완된 제도로 도입·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한국과 일본 비교
Table 2. Korea and Japan compared

구분	일본	한국
공통점	저출산, 미혼화,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더불어 고령화 진행	
고령화 인식	충분히 인지	심각성 인지 부족
고령화 사회 진행	1970년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 사회 2005년 초고령 사회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고령화 진행 속도 (고령화→초고령)	36년	26년 예상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	소규모 장례 발전 (슈카츠, 직장, 가족장)	미비한 실정

References

- [1] Geon Kim, A Beautiful Approach to Death, Well-Dying – The Bucket List, Closer to Heaven, Ending Note, Amour-, 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pp.641-664, 2013
- [2] Hyeok-Nam Kwon, Ethical Reflection on Lonely Death Problem of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Humanities, pp.245-277, 2013.
- [3] Seong-Hea Lee, The Correlations of Japanese Family Concept and Funeral Rites,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Sea, 39, pp.435-448, 2011.
- [4] Sang-Mi Woo, A Study on Change in Funeral Culture Following the Low Birthrate and High Age Society, Buddhism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pp.1-80, 2007.